

6일차

S1. 숙소

쪽지의 등장 때문에 잠을 설친 류해나. 겨우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해나 : (피곤한듯) 하.. 쪽지 때문에 이게 뭐야..

광! 그때 밖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뛰쳐나가보는 해나. 바닥에 서빙 로봇이 부서져있다.

해나 :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하.. 배고픈데..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미간을 구긴 해나, 곧 팜플렛을 집어들어 평면도 위를 세심하게 살핀다. 푸드코트로 목적지를 정한 듯 손가락을 평면도 위에 톡톡 두들기더니 걸음을 옮긴다.

S2. 푸드코트

푸드코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해나. 주방 내부에서 로봇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소리에 주방까지 슬쩍 들여다본다.

해나 : 주방은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이 없으니까 좋네..

곧 음식이 완성돼 해나의 앞에 놓여진다. 직접 음식을 들고가 푸드코트 빈자리에서 먹는 해나. 맛있게 먹고는 다시 팜플렛을 들여다본다. 나온 김에 관광을 하려는 듯 손가락이 팜플렛의 광장을 가로질러 민물관, 바다관, 아마조니아 월드를 톡톡 친다.

S3. 아마조니아 월드

아마조니아 월드에 도착한 해나. 물개관, 거북이관, 수달관이 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전부 무기력해보이는 동물들 뿐이다. 그때, 해나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오는 수달

수달 : (힘겹게 일어나 해나에게 걸어오며) 저기, 미안한데, 우리 밥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너무 배고파

해나 : (놀라 굳은채로).....

동물과 대화가 된다는 것에 적잖이 놀란듯 굳어버린 해나를 재촉하는 수달.

수달 : 류해나, 듣고 있어?

해나 :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내.. 이름은 어떻게..?

수달 : (지친 듯한 말투로) 여긴 너만을 위해 준비된 곳이야. 그러니 나도 네 이름을 알고 있지. 그럼 이제 밥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해나 : (당황한 티를 애써 감추며 일단 고덕거린다) 으응.. 그래. 갖다줄게.

여전히 놀랐지만 우선 복잡한 생각은 뒤로 밀어두기로 한 해나. 푸드코트로 돌아간다.

S4. 푸드코트

푸드코트로 돌아온 해나. 주방 안쪽에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고장난 로봇들.

해나 : (깨달은 듯이) 아, 이래서 아마조니아 애들이 다 굶고 있었던 거구나..

음식창고라고 적힌 주방 안쪽 문이 퍼즐로 잠겨있다.

S5. 푸드코트 음식창고

퍼즐을 풀고 창고에 들어간 해나. 물개, 거북이, 수달의 먹이통이 분류되어있다. 수달의 먹이통에서 열린 물고기를 꺼낸 해나. 물개와 거북이의 먹이통에서도 먹이를 챙겨가려는 듯 손을 뻗는다.

해나 : (깁깁거리며)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저건 또 왜 이렇게 높아..

물개 먹이통은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있고, 거북이의 먹이통은 딱 맞물려 열리지 않는다. 아무래도 다른 장비가 필요할 것 같다. 몇번 더 먹이통을 챙겨보려던 해나, 결국 포기하고 돌아선다.

S6. 아마조니아 월드

아마조니아 월드로 돌아온 해나. 수달에게 먹이를 전달해준다. 그러자 품에서 뭔가를 꺼내 밖으로 던지는 수달

해나 : (반사적으로 받아들며) 이..게 뭐야..?

수달 : 고마워서 주는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너한테 있는게 쓸모를 다하지 않겠어?

해나 : (열쇠를 잘 읽어본다) 청소도구함..?

고개를 갸웃거리던 해나, 얻은 열쇠를 쓰기 위해 청소도구함으로 향한다.

S7. 청소도구함실

청소도구함실 문을 열고 들어간 해나. 안에서 사다리를 발견한다.

해나 : 이걸 쓸만하겠는데..?

사다리를 챙긴 해나. 아마조니아 월드로 다시 나온다.

S8. 아마조니아 월드

문득 청소도구함실 옆의 문을 본 해나. 도어락으로 잠겨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도어락 위에는 영

단어*라고 적혀있다.

해나 : 여기도 관계자와 출입금지 시설인가보네..

대수롭지 않게 다시 푸드코트 음식창고로 향하는 해나.

S9. 푸드코트 음식창고

해나 : (심혈을 기울이는 듯) 공차. 이렇게 하면..

사다리를 설치해 물개 먹이통에서 열린 오징어를 꺼내는 해나.

해나 : 이거면.. 물개들도 좀 팔팔해지겠지..? 그나저나 거북이 먹이통은 어떻게 열지.. 일단 물개들이라도 살리고 보자.

S10. 아마조니아 월드

이제 한껏 뽕뽕해보이는 수달들과 달리 거북이와 물개는 여전히 축 쳐져있다. 물개의 먹이통에 오징어를 넣어주는 해나. 물개들이 달려와 허겁지겁 먹이를 먹어치우더니, 한 마리의 물개가 다가와 말을 건다.

물개 : 고마워 해나야.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 줄게 이것밖에 없네.

해나 : (먹이통 쪽으로 물개의 보답을 받아들며) 이건..

익숙한 질감의 쪽지에 익숙한 퀴즈가 그려져있다. 이미 몇 개의 단어들로 풀어진 행맨 퍼즐이다. 이거.. 그 쪽지가 남긴 퍼즐인거 같은데.. 이번엔 왜 퍼즐을 남긴거지? 잠깐만, 이 영단어.. 혹시 cctv실 비밀번호 아닐까?

S11. CCTV실

비밀번호를 풀고 cctv실에 들어간 해나. 휘둥그레진 눈으로 카메라들이 비추는 곳을 살펴본다. 자세히 살펴보니 팜플렛 평면도에는 나와있지 않은 공간들을 비추는 화면들이 있다.

해나 : (고개를 기울이며) 여긴 어디지..? 지도에는 나와있지 않은 공간인데..?

한참 화면들을 살피던 해나. 모니터 뒤로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또 다른 문이 있다.

해나 : ..여기 문이 또 있잖아? 평면도에는 나와있지 않은 공간인데.. 돌아다니다보면 이 문의 열쇠도 얻을 수 있는 건가?

한참 생각하던 해나. 결국 고개를 저으며 물러나더니 결심한 듯 말한다.

해나 : 됐어. 거북이 밥까지만 주고 난 다시 돌아가서 쉴 거야. 안 가본데를 다니다보면 또 뭔가 쓸만한게 있겠지.

팜플렛을 들여다보던 해나. 기념품점으로 가보기로 결정한다.

S12. 기념품점

기념품점을 구경하고 있는 해나. 마음껏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건지, 지키는 로봇도 계산하는 로봇도 없다. 마음편히 이곳저곳을 조사하는 해나. 인형으로 꽂찬 벽을 보며 무심코 한 인형을 들어 눌러보는데 소리가 난다

인형A : 비겁해

해나 : ..뭐야 이건..?

다른 인형도 눌러보자 말을 하는 인형들이 꽤 있다.

인형B :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어.

인형C : 나는 감자야.

인형D : 빨간 인형, 방금 거짓말했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인형들 가운데, 서로를 거짓말쟁이라고 치부하는 인형들이 있다. 곰곰히 생각에 빠진 해나. 곧 알았다는 듯이 거짓말 인형을 들어올려 유심히 살펴본다. 등뒤에 아주 작은 지퍼가 달려있다. 열어보자 안에서 끈적한 피와 함께 열쇠가 나온다.

인형E : 네가 대신 죽여줬어. 네가 대신 죽여줬어. 네가 대신 죽여줬어. 나도 그래도 돼?

섬뜩한 말을 하는 인형에 놀란 해나. 하얗게 질려서는 인형을 던지고 밖으로 후다닥 빠져나온다.

해나 : ..이거..진짜 피는 아니겠지..? 으.. 무서워..

손을 닦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는 해나.

S13. 여자화장실

화장실에 들어선 해나.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구긴다. 세면대와 화장실 칸들은 있는데, 화장실에는 반드시 있고는 하는 거울이 없다.

해나 : 뭐야. 왜 거울이 없지..? 으.. 일단 손부터 씻자. (손과 함께 열쇠를 씻는다) ..어라, 이거 여자 화장실 열쇠네. 흠.. 화장실은 열려 있었는데, 안에 뭐 더 열데가 있나?

손을 다 씻고는 열쇠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는 해나. 화장실칸을 하나 하나 열어보는데 마지막 칸이 열리지 않는다. 자세히 보니 잠금장치에 열쇠구멍이 있다.

해나 :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또 무서운게 튀어나오지는 않겠지?

실눈을 뜨고 안을 바라본 해나의 시야에 평범한 청소도구들만이 눈에 들어온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해나. 곧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한다.

팔랑, 쪽지가 하나 떨어진다.

해나 : (쪽지를 주우며) 음... 이건 뭐지..

쪽지에는 의미를 연결짓기 힘든 영단어들이 적혀있다. -> 관리실 비밀번호

해나 : 여길 열면 거북이 먹이통을 열만한 도구도 있으려나?

- 관리실 : 비밀번호를 풀고 관리실에서 쪽지를 발견하는 주인공. 미러가 생각을 읽지 못하도록 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끄는 법 기믹 2개(positive, 은색 버튼 글자 찾기) -> 미러를 끕니다.

- 미러를 끄자 옆방에서 문열리는 소리가 남. 보일러실에서 기름을 가져다 거북이 밥통을 열고 밥을 가져다줌. 거북이가 깨야 하는 조각상에 대한 힌트 쪽지 + 바다생물이 싫어하는 것 알려줌.

편의점(민물관 애들이 싫어하는 거 써있음), 바다관, 민물관 돌면서 애들을 무찌르고? 쪽지 2개 얻어내기 + 편의점 자판기에서 열쇠 꺼내기(동전은 카페, 남자화장실에서 얻기)

Memo

해나이름 뜻 : 바다 해, 아름다울 나 / 아름다울 나자에는 흔들리다, 아리뻏다(아름답고 여리다)라는 뜻도 있음

거북이 밥통을 열수 있을법한 도구를 찾기 위해 아쿠아리움을 돌아다니기로 함